

## News

### 美 블랙록, KB금융 지분 6%대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KB금융 지분에 대한 블랙록 공시는 지난 2014년 5월 23일 이후 7년 만이다. 당시 블랙록은 KB금융 지분을 5.01% 보유하고 있었다.

블랙록은 이번 지분 확대를 투자 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은행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분을 늘렸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 20대도 내집마련 위해 '영끌' … "주택관련대출 증가세 지속"

한국경제

한국은행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3월)를 통해 주택가격 오름세 및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금융불균형 위험 누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데 이어 올해도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가격도 지난해 6월 이후 상승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

### 하나금융, 올해 총자산 '5.7%' 성장 목표…코로나 대출 연장에 '보수적'

뉴스핌

1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올해 총자산 성장을 목표는 5.7%로 작년 목표(5.8%)와 비슷한 수준이다.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올해 하나금융의 신탁자산 포함 총자산은 627조원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이 2020년 -1.1%에서 2021년 3%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음에도, 작년과 올해 비슷한 성장 목표를 제시했으나 보수적인 목표 제시

### 당국 제동에 몸 사리는 은행…'무더기 점포 폐쇄' 안한다

머니투데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 4대 은행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모두 14개 점포의 문을 닫는다. 같은 기간 신설되는 점포는 3곳이어서 모두 11개 점포가 줄어든다.

이달부터 점포 폐쇄 움직임이 잠잠해졌는데, 점포 폐쇄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관련 절차를 개정, 점포 폐쇄 결정 전 사전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 정세균 "공매도, 기관에 책임 묻는 제도 보완해서 시행해야"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5월3일부터 대형주를 대상 공매도 재개에 관해 "기관들이 제대로 룰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철저히 책임을 묻는 제도를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공매도가 국내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이므로 폐지 불가 강조

### MG손보 16일 자동차보험료 인상, 롯데·악사·캐롯도 올린다

머니투데이

MG손해보험은 오는 16일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 인상. 롯데손해보험, AXA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등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의뢰해 곧 인상에 나설 것으로 확인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순매출 높은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보험료 인상이 시작됨에 따라 대형사들도 인상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분위기

### 보험사 미성년자 소송에 제동…소액 보험 기간 1년 이내

조선비즈

보험사가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허가를 얻는 소송관리위원회 심의도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미성년자,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 반려견 보험, 날씨 보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액 단기 보험의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 변동성 커진 증시..채권형펀드·ELS에 돈 몰려

머니투데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한 투자상품인 채권형 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자금이 유입된다. 지난해 증시 강세장에서 소외받았던 ELS로도 눈길이 간다.

국내 채권형 펀드에는 지난 10일 기준으로 최근 한달 동안 8500억원이 순유입. 연초대비 1.3조 들어왔다. 올해 국내 주식형 펀드 전체 자금 유입액(4935억원)의 3배 가까운 규모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